

## 김해시 도시경관에 대한 시민의 인식변화 연구

이장민<sup>1</sup>, 고인석<sup>1\*</sup>  
<sup>1</sup>인제대학교 건축학과

### A Study on the Changes in Citizens' Perceptions of Urban Landscape of Gimhae

Jang-Min Lee<sup>1</sup>, In-Seok Ko<sup>1\*</sup>

<sup>1</sup>Department of Architecture, Inj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김해시 도시경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2003년과 2011년 사이에 그 것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도시경관의 현황과 자원에 대한 인식에는 큰 변화는 없었으나 도시 형상 변화와 생활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 등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며, 도시경관의 관리방향에 대한 인식에서도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환경보호에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경관에 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8년 사이에 큰 변화는 없었으며, 본인의 경제적인 희생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제보다는 지원과 유도 중심의 도시경관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citizens' perceiving urban landscape. To this end, the citizens' perceptions of urban landscape of Gimhae were surveyed two times in 2003 and 2011. To examin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frequency analysis, the chi-square test were applied. There were small changes of opinion between two periods caused by the change of city form, an increase in interest in the living environ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o on. The interest of the citizens of the landscape were high. Citizens showed a negative feedback with respect to economic sacrifice. So, regulation causing citizens' economic loss should be avoided and It is effective to establish policies to support and indu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intended to be used as a reference to the planning urban landscape.

**Key Words** : Urban Landscape, Changes in Perceptions, Chi-Square Test, Gimhae City

### 1. 서론

소득수준의 향상, 자연과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 등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방식이 개발위주에서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부터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경관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경관조례 및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경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의 정체성 있고 아름다운 경관은 도시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도시경관은 공원, 하천, 도로 등의 공개공간과 이에 부속된 공공시설물 등으로 이루어진 공적인 영역과 개인의 필지와 건물, 간판 등 사적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서는 공적인 영역보다는 사적인 영역의 넓이가 더 넓어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도시경

본 논문은 2013학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13 Inje University research grant)

\*Corresponding Author : In-Seok Ko (Inje Univ.)

Tel: +82-55-320-3688 email: [isko@inje.ac.kr](mailto:isko@inje.ac.kr)

Received January 30, 2015 Revised February 11, 2015 Accepted February 12, 2015

관의 보전, 관리, 형성은 어려운 일이다. 도시경관계획은 전문분야로서 시민들이 계획을 직접 수립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도시의 현재 현황, 미래의 목표상,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과 실천 방법 등에 대하여 시민들의 공감감이 없는 계획은 실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경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도시경관의 계획 수립과 실행 그리고 유지관리를 지속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김해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3년과 2011년에 실시된 설문조사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도시경관에 대한 시민인식과 그 변화를 고찰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이다. 시민들은 지역의 경관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형성하는 주체이므로 이들의 도시경관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경관계획 및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 2.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경관의 인식에 관한 시간적 변화와 집단별 차이를 연구한 논문들이 있을 것이다. 먼저 경관 인식의 시간적 변화에 관한 논문을 살펴보면,

박현찬 외 5인(2010년)[1]은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1994년, 2004년, 2009년 3회에 걸쳐 시행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시민의 인식변화를 고찰하고, 2009년 조사내용에 대하여는 시민과 전문가의 인식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인식의 시간적 변화와 집단별 차이를 연구하고 있으나 빈도의 단순 비교에 그쳐서 통계학적인 의미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주신하(2012)[2]는 1920년대부터 1999년까지의 신문에 나타난 관련 기사를 분석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경관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서 '경관'이라는 단어의 의미 변화를 정성적인 방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관인식에 관한 집단별 차이를 연구한 대표적 논문을 살펴보면, 신우화(2012)[3]는 대구약령시의 경관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상인, 일반인, 기업 그리고 전문가 집단들 간의 인식차이를 연구하였다. 고인석(2014)[4]은 김해시 도시경관에 대한 현황과 관리방향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 사이의 인식차이를 통계학적으로 연구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경관의 집단별 인식차이에 대한 논문들은 통계학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차이를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있으나,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연구한 박현찬 외 5인(2010)과 주신하(2012)는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고 있으나 단순 빈도의 비교, 정성적 판단의 접근 방법으로 통계학적 유의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경관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통계학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경관 계획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1 연구범위

공간적 범위는 2011년 현재 행정구역상 김해시로 한정한다. 경상남도에 속해 있는 김해시는 행정구역의 면적이 463.26km<sup>2</sup>이고 1읍, 6면, 12동으로 구성된 도농통합형 도시이다. 금관가야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역사도시인 김해는 대도시인 부산, 창원과 인접하여 있어 두 도시의 경제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지형적으로는 북쪽이 산악지대이고 남쪽에 김해평야가 있으며 그 사이에 도시가 발달하여 있고, 북쪽과 동쪽으로 낙동강이 도시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김해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1992년 22.7만명이었던 인구는 2010년 50만을 넘어서면서 2012년 행정안전부로부터 대도시로서 대우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2년 12월 현재 52만을 넘어서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조사는 2005년의 김해시 도시경관 계획[5]과 2012년의 김해시 기본경관계획[6]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조사된 설문내용 중에서 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도시경관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경관의 현황과 자원, 관리방향, 그리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의사 3가지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현황과 자원에서는 도시이미지, 경관훼손요소, 김해의 상징, 경관보존에 중요한 산, 상징적인 거리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관리방향에서는 경관목표상, 우선 시행사업을 조사하였고, 관심과 참여의사에서는 경관에 관한 시민의 관심과 시민의 참여의사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였다.

### 3.2 조사 대상 및 방법

설문조사의 조사기간은 2003년 12월 15일부터 2004년 1월 3일까지 20일간, 그리고 2011년 7월 27일부터 8월 15일 20일간 실시하였다. 조사는 사전에 설문조사훈련을 마친 인제대 건축학과 학생들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김해시의 인구구조와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사하였다. 2003년에는 591부, 2011년도에는 355부가 본 연구에 활용되었다.

### 3.3 분석방법

설문자료의 분석은 각 문항의 예시들에 대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하고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함으로써 2003년과 2011년도 2회의 각 예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 8년 사이에 시민인식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문항에 대한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사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다만 2회의 조사에서 상호간에 설문 조사방법(객관식과 주관식 등)이나 조사항목이 서로 다른 경우는 카이제곱검정을 통한 비교가 어려우므로 차선책으로 빈도 분석에 의하여 항목별 순위와 빈도 백분율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차이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버전을 사용하였다.

## 4. 인식조사 결과 분석

### 4.1 응답자의 일반적 속성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2003년이 591명, 2011년이 355명이 참가하였으며, 일반적인 속성인 성별, 나이,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2003년도와 2011년도 응답자는 여자가 50.3%와 51.0%로 약간 더 많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38.2%, 43.9%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기간은 대체로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General properties of the respondents

		2003	2011
Gender	Male	292 (49.4)	174 (49.0)
	Female	297 (50.3)	181 (51.0)
	Non response	2 ( 0.4)	
Age	20s	226 (38.2)	156 (43.9)
	30s	186 (31.5)	72 (20.3)
	40s	113 (19.1)	84 (23.7)
	Over 50s	66 (11.2)	43 (12.1)

Residence period	Less than 1 year	5 ( 0.8)	19 ( 5.4)
	1~5 years	166 (28.1)	74 (20.8)
	5~10 years	124 (21.0)	57 (16.1)
	10~20 years	128 (21.7)	100 (28.2)
	over 20 years	160 (27.1)	105 (29.6)
Non response		8 ( 1.4)	
Total		591(100.0)	355(100.0)

## 4.2 경관의 현황과 자원

### 4.2.1 도시이미지 평가

[Table 2] Image of the city

	2003		2011	
Very bad	11	(1.9)	5	(1.4)
Bad	98	(16.7)	52	(14.6)
Moderate	348	(59.2)	176	(49.6)
Good	124	(21.1)	113	(31.8)
Very good	7	(1.2)	9	(2.5)
$\chi^2(p)$	17.05(.002)			

‘도시 이미지’에 관한 시민인식의 변화에 대한 카이제곱검정결과 검정통계량이 17.05로 유의수준 0.05에서 p값(유의확률)이 0.002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2003년도와 2011년도 모두 ‘보통이다’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좋다’와 ‘좋지않다’에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좋다’와 ‘아주 좋다’에 응답한 비율이 22.3%에서 34.3%로 12.0% 증가하여 도시 이미지에 대한 생각이 2011년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 4.2.2 경관훼손요소

[Table 3] Elements damaging Urban Landscape

	2003	2011
Factories in mountains & foothills	118 (10.2)	75 (10.6)
Disorder of urban street environment	143 (12.3)	93 (13.2)
Poor housing and living environment	106 (9.1)	54 (7.7)
Building visual defects	77 (6.6)	64 (9.1)
Skyline destruction by high-rise buildings	38 (3.3)	
Confusing of outdoor billboards & signs	137 (11.8)	84 (11.9)
Jarring colors of buildings	51 (4.4)	28 (4.0)
Poor riverside	181 (15.6)	103 (14.6)
Alone apartments in rural areas	65 (5.6)	46 (6.5)
Scattered industrial areas within the city	146 (12.6)	100 (14.2)
Congestion of the city entry border	67 (5.8)	43 (6.1)
Retaining walls and noise barriers	21 (1.8)	
Etc.	11 (0.9)	15 (2.1)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요소’에 대한 설문은 문항수가

많아서 2003년도의 조사에서 응답 빈도가 낮은 2개의 문항을 삭제(Table 3에서 사선으로 표시한 부분, 이하 동일)하고 2011년도에 조사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이 달라서 카이검정은 의미가 없으므로, 빈도분석만 실시하였다. 2회 모두 ‘불량한 하천변’, ‘도심내 산재한 공장지대’, ‘도심가로환경 무질서’, ‘산지·구릉지의 공장’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으며 빈도도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요소에 대한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4.2.3 김해의 상징

김해를 대표하는 상징물에 대한 조사에서 2003년도에는 주관식으로 조사를 하였고, 2011년도에는 객관식으로 조사를 하여 카이검정은 의미가 없으므로 빈도분석만 실시하였다. 2회 모두 ‘수로왕릉’과 ‘김해평야’가 1,2위를 차지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연지공원’과 ‘낙동강’이 각각 3위로 조사되었다.

[Table 4] Symbol of Gimhae

	2003	2011
Royal Tomb of King Suro	250 (36.3)	192 (54.1)
The Gimhae plain	108 (15.7)	89 (25.1)
Yeonji Park	46 (6.7)	
Nakdong River	41 (6.0)	25 (7.0)
National Museum	30 (4.4)	
Astronomical Observatory	22 (3.2)	non
Gujibong Peak	21 (3.0)	9 (2.5)
Ceramics	11 (1.6)	10 (2.8)
Small-Medium factory		20 (5.6)
Etc.	160 (23.2)	10 (2.8)

#### 4.2.4 경관보존에 중요한 산

[Table 5] Important mountain in scenery preservation

	2003	2011
Imhosan (Mt.)	92 (8.0)	73 (10.4)
Sineosan (Mt.)	466 (40.6)	238 (33.8)
Bunseongsan (Mt.)	86 (7.5)	111 (15.7)
Muchuksan (Mt.)	209 (18.2)	133 (18.9)
Hwangsaeobong	28 (2.4)	20 (2.8)
Gyeongunsan (Mt.)	63 (5.5)	42 (6.0)
Pilbongsan (Mt.)	8 (0.7)	10 (1.4)
Namsan (Mt.)	52 (4.5)	13 (1.8)
Bulmosan (Mt.)	138 (12.0)	55 (7.8)
Etc.	7 (0.6)	10 (1.4)
$\chi^2(p)$	58.494(p값<.0001)	

‘경관보존에 중요한 산’에 관한 조사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결과 검정통계량이 58.49로 유의수준 0.05에서 p값(유의확률)이 0.0001이하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1, 2, 4순위는 ‘신어산’, ‘무척산’, ‘임호산’이 언급되었으나, 3위에 ‘불모산’과 ‘분성산’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분성산’은 시가지에 인접한 산으로서 5위에서 2011년에는 3위에 언급되었다. 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겠다.

#### 4.2.5 상징적인 거리

[Table 6] Symbolic Street

	2003		2011	
Haebancheon-ro	82	(14.1)	74	(21.1)
Bunseong-ro	19	(3.3)	29	(8.3)
Guji-ro	20	(3.4)	7	(2.0)
Jong-ro	8	(1.4)	8	(2.3)
Hogye-ro	25	(4.3)	4	(1.1)
Trail of Gaya	302	(52.1)	172	(49.0)
Garak-ro	51	(8.8)	13	(3.7)
Daehak-ro	51	(8.8)	13	(3.7)
National Road 14	19	(3.3)	20	(5.7)
Etc.	3	(0.5)	11	(3.1)
$\chi^2(p)$	56.422(p값<.0001)			

‘상징적인 거리’에 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결과 검정통계량이 56.42로 p값(유의확률)이 0.0001 이하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2003년도에는 ‘가야의 거리’, ‘해반천로’, ‘가락로’와 ‘대학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에는 ‘가야의 거리’, ‘해반천로’, ‘분성로’, ‘국도14호선’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경전철의 개통으로 ‘해반천로’와 ‘분성로’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고, 경전철 개통과 도시 남쪽의 개발로 ‘국도14호선’의 중요성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반천로’와 ‘국도14호선’은 공식적인 명칭이 ‘김해대로’로서 같은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나, 2개를 서로 구분하기 위하여 옛 명칭을 사용하고, 설문지에서는 지도를 그려서 제시하였다.)

### 4.3 관리방향

#### 4.3.1 경관목표상

‘경관목표상’에 대한 조사는 2003년도 항목에는 빠져 있던 ‘친환경도시’가 2011년도에 추가되는 변경이 있어 카이제곱검정은 의미가 없으므로 빈도분석만 실시하였다. 2003년에는 ‘문화·예술도시’, ‘역사도시’, ‘전원도시’,

‘교육도시’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2011년에는 ‘문화·예술 도시’, ‘친환경도시’, ‘역사도시’, ‘전원도시’로 순서로 나타났다. 2회의 조사를 비교하면 환경의 보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친환경도시’가 2위에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다른 항목의 순위변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Goal Image of the City

	2003		2011	
Garden city	94	(16.0)	25	(7.)
Historical city	163	(27.8)	72	(20.)
Cultural and art city	244	(41.6)	149	(42.)
Commercial and logistic city	30	(5.1)	11	(3.)
Educational city	42	(7.2)	11	(3.)
Industrial city	8	(1.4)	6	(1.)
Green city			76	(21.)
Etc.	5	(0.9)	4	(1.)

### 4.3.2 우선 시행사업

[Table 8] Projects preferentially performed

	2003		2011	
Composition of symbolic places & symbols	210	(18.0)	114	(16.1)
Maintenance of river	116	(9.9)	72	(10.2)
Protection of forest and ridges of mountains	97	(8.3)	48	(6.8)
Conservation of historic buildings and the surroundings	210	(18.0)	107	(15.1)
Implementation of the good design buildings Award	15	(1.3)		
Plant maintenance scattered in the farming town			65	(9.2)
Making of parks & plazas and landscape planting	141	(12.1)	88	(12.4)
Improved design of buildings and structures	66	(5.7)	39	(5.5)
Making symbolic street in Eup, Myeon, Dong	38	(3.3)	47	(6.6)
Improvement of the buildign & urban color environment	46	(3.9)	29	(4.1)
Maintenance of billboards, outdoor advertisings	97	(8.3)	50	(7.1)
Directing nightscape	53	(4.5)	32	(4.5)
Development of citizens' campaign	77	(6.6)	13	(1.8)
Etc.	2	(0.2)	3	(0.4)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사업에 대한 조사에서도 2회의 설문 항목이 1개씩 달라서 빈도분석만 실시하였다. 2003년도에는 ‘상징적 장소와 상징물 조성’과 ‘역사적 건물과 주변 환경 보전’이 공동 1 위, 그 다음으로 ‘공원, 광장 조성과 조경 식재’, ‘하천 정비’의 순으로 나타났고, 2011년에는 1,2 순위가 결정된 것

을 제외하면 같은 순위로 조사되었고, 빈도의 비율도 크게 변하지 않아서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추정된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경관사업은 도시의 상징물 조성, 김해 역사의 보전, 도시의 생활환경이 되는 공원과 광장의 조성, 그리고 자연경관 정비의 순서로 나타났다.

## 4.4 시민의 관심과 참여의사

### 4.4.1 경관에 관한 관심도

[Table 9] Interest on the landscape

	2003		2011	
Very much	74	(12.6)	48	(13.5)
A liffle	207	(35.4)	128	(36.1)
Moderate	229	(39.1)	119	(33.5)
Few	67	(11.5)	53	(14.9)
Not at all	8	(1.4)	7	(2.0)
$\chi^2(p)$	4.642 (.326)			

시민들의 경관에 대한 관심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의 결과 검정통계량이 4.642였고 그에 대한 유의확률값은 0.326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에는 ‘보통이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2011년도에는 ‘조금 있다’에 가장 많이 응답하여 관심도가 증가하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할 만한 수치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금 있다’와 ‘아주 많다’가 각각 48.0%, 49.6%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경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4.2 시민의 참여의사

보다 나은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기금마련에 참여를 묻는 질문에 대한 카이제곱검정 결과 유의확률값이 0.0001이하로 2003년과 2011년의 응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하면 참여’와 ‘불참’의 합이 2회 각각 58.8%와 71.4%로 나타나 모두 부정적이며, 2011년에는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Participating in fundraising

	2003		2011	
Active participation	35	(6.0)	15	(4.2)
Possible participation	206	(35.2)	86	(24.4)
Participation if necessary	293	(50.1)	200	(56.7)
Absence	51	(8.7)	52	(14.7)
$\chi^2(p)$	18.626(p값<.0001)			

[Table 11] Taking of private property infringement

	2003		2011	
Active participation	23	(3.9)	12	(3.4)
Possible participation	140	(23.9)	77	(21.8)
Participation if necessary	313	(53.4)	186	(52.5)
Absence	110	(18.8)	79	(22.3)
$\chi^2(p)$	2.018(.569)			

양호한 경관 확보 또는 공원용지 등을 위하여 사유재산 침해를 감수할 것이냐는 의견의 변화에 대한 검정결과 유의확률 0.569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하면 참여’와 ‘불참’ 의견의 합이 2회 각각 72.2%, 74.8%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 Participation in civic meeting

	2003		2011	
Active participation	77	(13.3)	41	(11.6)
Possible participation	237	(40.8)	129	(36.5)
Participation if necessary	233	(40.1)	144	(40.8)
Absence	34	(5.9)	39	(11.0)
$\chi^2(p)$	9.089(.028)			

동네 경관가꾸기를 위한 시민모임에 참여에 대한 의견의 변화에 관한 검정결과는 유의확률이 0.028로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 참여’와 ‘가능한 참여’의 합이 2003년에는 54.1%에서 2011년에는 48.1%로 줄어들면서 참여의사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3] Landscape of the house

	2003		2011	
Active participation	143	(24.5)	81	(22.9)
Possible participation	258	(44.2)	142	(40.1)
Participation if necessary	167	(28.6)	111	(31.4)
Absence	16	(2.7)	20	(5.6)
$\chi^2(p)$	6.521(.089)			

집 울이나 담에 나무를 심거나, 베란다에 화초 장식에 참여할 의사는 카이제곱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89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 참여’와 ‘가능한 참여’의 합이 2회 각각 68.7%, 63.0%로 나타나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 의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마련 참여, 사유재산침해 등 경제적인 기여와 희생에

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약간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시민모임에 참여는 2003년에 긍정적이던 의견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조금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집에 나무를 심는 등 경제적 손실이 없이 실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2회 모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 5. 결론

그 동안 개발위주로 이루어진 도시조성에 대한 반성으로 정주환경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도시정책의 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도시경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였나를 살펴서 도시경관 계획 등의 기초용 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하여 김해시를 대상으로 시민들의 인식을 2003년과 2011년 2회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변화 여부를 통계적 기법으로 검정하여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이미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2003년도에 비하여 2011년도에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전국 최초로 도시디자인과의 신설, 경관법 제정 이전인 2005년 도시경관계획의 수립 등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김해시와 시민들의 도시경관에 관한 선도적인 정책의 수립과 꾸준한 실행의 결과라고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도시경관의 현황과 자원에 대한 인식에서 큰 변화는 없으나, 도시의 형상 변화와 일상생활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 등이 반영되어 약간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경관훼손요소, 시의 상징, 주요 산, 상징적 거리 등의 설문에서 대체적으로 1, 2순위는 변화가 없었고 3, 4순위에서 약간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면 상징적인 거리에 대한 인식에서 ‘분성로’와 ‘국도14호선’이 2011년도에 3, 4순위로 올라온 것은 경전철의 개통과 도시의 남쪽인 국도14호선변 도시개발 등 도시의 변화양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관보존에 중요한 산의 설문에서 2003년에 5위인 ‘분성산’이 2011년에 3위로 언급된 것은 도시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시경관의 관리방향에서도 8년 사이에 큰 변화

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환경보호에 관한 관심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 경관목표상이 2003년에는 ‘문화·예술도시’, ‘역사도시’, ‘전원도시’, ‘교육도시’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2011년에는 ‘문화·예술도시’, ‘친환경도시’, ‘역사도시’, ‘전원도시’로 순서로 나타났다. 물론 2003년도의 설문에서 ‘친환경도시’의 항목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친환경도시’가 2순위로 인식된 것은 자연환경에 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넷째, 시민들의 경관에 관한 관심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8년 사이에 관심도의 변화는 없었으며, 본인의 경제적인 희생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금마련 참여, 사유재산침해 감수 등의 설문에는 부정적이었으며, 8년 사이에 더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인의 집에 나무를 식재하는 등의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실천하는 내용에는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제보다는 지원과 유도 중심의 도시경관 정책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김해시라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 연구와 비교하여 좀 더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을 보인다. 그리고 도시의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생하므로 본 논문이 비교한 8년의 기간은 도시에 대한 시민인식 변화를 관찰하기에 짧은 기간일 수도 있으므로 더욱 긴 기간 동안의 변화를 연구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Hyun-Chan Bahk, Seong Chang Lee, Sang Hyeok Jeong, Seung Ki Lee, Seung Ju Kim, Hyun Jung Pakk, “A Study of the Shift and the Difference in Perceptions on Urban Landscape of Seoul“, Seoul development Review, Vol.11 No.4, 2010
- [2] ShinHa Joo, Recognizing Changes to the Landscape through the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Journal of Institute of Recreation and Landscape Planning, Vol.6 No.2, p1~11, 2012
- [3] Woo-Hwa Shin, Differences of Opinion Among Four Groups regarding the Revitalization of a Specialized Street in Downtown, Journal of the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Vol.13 No.2, p73-83, 2012

- [4] InSeok Ko, “Study on the Opinion Differences between citizens and professionals regarding Urban Landscape of Gimhae“,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16 n.1, p169-175, 2014
- [5] InSeok Ko, SinGoo Woo, MalSoon Min, YooSeok Seo, JaeHyuk Yang, SoonDeok Kang, Gimhae Urban landscape plan, p.371, Gimhae city, 2005
- [6] InSeok Ko, YooSeok Seo, JangMin Lee, SoonDeok Kang, JongGook Yoon, Gimhae Urban landscape plan, p.322, Gimhae city, 2013

## 이 장 민(Jang-Min Lee)

[정회원]



- 1997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
- 2003년 12월 : Ecole d'Architecture Paris Belleville (건축학 석사, 프랑스공인건축사)
- 2004년 4월 ~ 2006년 8월 : 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실장
- 2006년 9월 ~ 현재 : 인제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축계획 및 설계, 도시설계, 도시경관

## 고 인 석(In-Seok Ko)

[정회원]



- 198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석사)
- 1989년 1월 ~ 1992년 12월 : 종합 건축사사무소진원'토우 과장
- 1993년 1월 ~ 2000년 2월 : ㈜종합 건축사사무소범건축 부소장
- 2000년 3월 ~ 현재 : 인제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축계획 및 설계, 도시설계, 도시경관